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톨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지혜서 3,1-9 화답송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기르의 증의 규정 구경한 근찰의 경조구를 근되었다. 또한 한 보이지 좀 에스 그리지도 된 나이 이어도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이ㅡㅁ에게지 되면 이ㅡㅁ, 첫에게 되면 첫,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민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민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8,31 L - 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 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 루카 9,23-26

성가 | 입당성가 [287] 예물준비 [218] 영 성 체 [165] 파 견 [283]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신균 요한 송준호 바오로 이용기 요셉 김희철 윤의호 안드레아 이묘자 데레사 김정우 시몬 배마르코 전순복 젬마, 김세문 다니엘 양필순 아녜스 서지석 조모 김봉숙 마리아 생미사	의명 이영근 마이클 이홍규 요한 김승애 클라라 김승애 클라라 김유화 데레사 강명옥 프란체스카 배인순 아가다 익명 유승진 프란치스코 학부모회 목헌
박혜화 도미니카 가족 조남록 미카엘 영명축일 조남록 미카엘 영명축일 조남록 미카엘 영명축일 김선준미카엘, 김영주가브리엘라, 김라피엘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이성칠미카엘 이경재라파엘 영명축일 이경철가브리엘 영명축일 김진열 가롤로 신부 영육건강 장리차드, 화연 크리스틴 생일축하 이정주 소화데레사 축일 세계사제의날 송다리아 진오도, 소화데레사 영육건강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안선정 데레사 조 데레사 익명 익명 꾸리아 이경철 가브리엘 이경철 가브리엘 지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조미카엘, 데레사 오미카엘, 데레사 이명

날짜	해설	1 독 서	2 독 서	보편지향	성찬 봉 사	복사
9월 29일	김진수	민완준	류유리	류유리	유정옥	조바실리오 이유스티나
10월 6일	조소연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20,072단

[위령기도를]



이신균 요한 형제 선종, RIP 주님, 요한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오늘 미사후 전신자 연도: 아래성당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어 1년동안 봉헌된 전신자 묵주기도가 오늘 종료 됩니다. 총 123,636단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신 교우들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접하지 못하셨던 분까지 누구나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바 쳤던 교우들의 묵주기도 카드를 오늘 미사중 봉헌하겠습니다.

▶오늘(9/29) 겨울철 무료 독감 주사 접종

오늘은 겨울철 무료독감 주사를 접종 하는날 입니다. 접종시 본인의 주소등을 적어야하니 본인의 ID를 지참하시면 좋습 니다. 접종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장소: 교육관 B1

▶미국본당 제3회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에 교우분들 초대합니다 9/29(일) 1:30pm~4:pm, 다미안홀

→ 안내및 티켓구입

*본당 '맥주 축제'가 다미안홀에서 열리는 오늘(9/29)은 <u>미사후 친교모임이 없습니다.</u>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반(2,4째주)	10am~11:30am	교육관 B1	Fr.김가 롤 로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신청: Sr.김효주 347.834.5784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사도행전~요한묵시록

주일반	12:40pm~1:50pm	교육관 3A
목요반	10am-11:20am	김효주수녀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전신자 묵주기도 500단 바치는 날

일시: 10/20(일) 미사직후~ 5pm, 아랫성당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에 오셔요~

일시: 10/12(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14차 성장세미나, 성령안에서 영적성장 원하시는분

일시: 10/27(일)~30(수), 3박4일 장소: 마리안 쉬라인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미숙안나 917-579-5072

▶청년회 성프란치스코 기념일 무비나잇

일시: 10/4(금) 7pm~10pm 장소: 다미안홀

영화: Brother Sun, Sister Moon. 치킨, 피자, 간식제공, BYOB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빈첸시오. 카톡ID: ijinhyunjong

신청등록: 청년회 오픈챗 확인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아느 건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깊이 놼복하세요~ ③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осто

OLNOW

K BBO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 UDON Lab

J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clearlaser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u>산 아이라 (아오스딩)</u>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故 이신균 요한 형제 장례미사

이신균 요한 형제의 장례미사가 9월 26일 오후 2시 뉴튼수도원에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는 김가롤로 신부와 뉴튼 수도원 원장 김사무엘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으며, 맨하탄 본당 교우분들과 봉헌회원들, 뉴튼 수사님들과 김효주 수녀가 참석하였다.

김사무실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께서 이신균 요한 형제를 당신 품에 들어올리시어,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이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슬픔과 고통중에 있는 고인의 어머니 마리로사 자매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빈다.'며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장례미사가 끝난후 故 이신균 요한 형제는 도열한 신부, 수녀, 교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느님 곁으로 떠났다.







